또 다시 '생존경쟁'

신태용호, 7일부터 제주서 1차 전훈
내년1월 U-23챔피언십 옥석 가리기



신태용(45·사진)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나선다. 이 대회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다.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와 함께 C조에 속해있다. 4개조 1·2위 팀만이 8강 토너먼트에 올라 최강자를 가린다. 3위까지 올림픽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최종예선을 앞둔 대표팀에게 12월은 매우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대표팀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차 전지훈련을 치른다. 서귀포 전지훈련에는 국내 프로, 대학팀, J리그(일본) 소속의 선수 32명이 참가한다. 국내파, J리그 선수들에게는 신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경쟁에서 밀릴 경우, 사실상 올림픽 최종예선 명단에 포함되기 어렵다. 게다가 신 감독은 17일부터 펼쳐지는 울산 전지훈련에는 25명의 선수만 소집할 계획이다. 울산 전지훈련에는 류승우(22·함부르크)를 비롯한 해외파와 부상으로 서귀포 전지훈련에서 빠진 권창훈(21·수원삼성)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귀포 전지훈련에 참가한 32명 가운데에 3분의 1가량은 울산 전지훈련에서 빠져야 하는 상황이다.

신 감독은 서귀포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기량을 재점검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선수들을 가려낼 예정이다. 국내파와 J리그파 모두 시즌을 막 끝낸 뒤라 휴식이 절실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자신의 페이스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입장이다.

A대표팀의 경우 2015호주아시안컵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귀포 전지훈련에서 이정협(24·부산)이라는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냈다. 올림픽대표팀 역시 '제2의 이정협'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구단서 청탁 금품 받은 전·현직 심판들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3일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현직 K리그 심판 최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K리그 심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이랜드FC,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MOU

서울 이랜드FC는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상균 서울 이랜드 대표이사와 이영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구단과 송파구의 상호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안산 경찰청, 의무경찰순경 7명 추가 선발

안산 경찰청은 2016시즌 중반 기존 선수들의 전역에 대비해 7명의 의무경찰순경(체육특기)을 추가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선발된 선수는 남준재(성남FC), 김대호(포항 스틸러스), 김재웅(수원FC), 황도연(서울 이랜드), 손정현, 정성민(이상 경남FC), 하인호(고양HiFC) 등이다. 남준재, 손정현은 내년 2월 4일, 다른 5명의 선수는 5월 12일 각각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정성룡·김승규 이탈?…'GK 대란' 오나?

J리그서 좋은 조건에 공식 제안 받아
성남FC 주전 박준혁 다음주 현역 입대
주전 GK 이탈…내년 연쇄이동 불가피

조짐이 심상치 않다. K리그에 '골키퍼 대란'이 몰아칠 분위기다.

2015시즌 종료와 함께 시작된 겨울이적시장을 통해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수문장들이 대거 이탈할 전망이다. 유력 행선지는 일본 J리그다. 국가대표인 정성룡(30·수원삼성)과 김승규(25·울산현대)는 이미 좋은 조건의 공식 제안을 받았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정성룡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적극적 구애를 받고 있다. 실력도 이미 검증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2차례 월드컵(2010남아공·2014브라질)과 3차례 아시안컵(2007동남아 4개국·2011카타르·2015호주)에 나선 정성룡은 K리그 무대에서도 통산 296경기에 출전해 310실점을 했다.

정성룡과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경쟁을 펼쳐온 김승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얻은 병역면제 혜택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소 입소에 앞서 구단에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규리그 118경기에서 124실점을 한 김승규에게 러브콜을 보낸 팀은 빗셀 고베. 울산은 "최대한 김승규를 붙잡고 싶지만, 선수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정성룡, 김승규의 J리그행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이 아닌, 이탈의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군 입대다. 올 시즌 성남FC의 확실한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한 박준혁(28)은 '기가 막히게도' 챌린지(2부리그) 안산 경찰청 입단에 실패했고, 결국 현역병 신분으로 다음주 입대하게 돼 당분간 그라운드를 떠난다.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울산 김승규(왼쪽)와 수원 정성룡의 J리그 진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K리그 골키퍼들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이렇듯 대어급 골키퍼들의 대대적 이탈은 연쇄이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백업 멤버를 끌어올려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필드 플레이어와 달리 주전 멤버가 아니라면 출전 기회가 지극히 적은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는 ▲경기감각 ▲동료들과의 호흡 등 여러 모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성남은 베테랑 골키퍼 전상욱(36)이 있는 반면, 수원과 울산은 확실한 대체자로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벌써 몇몇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 유력구단의 주전 골키퍼 A와 모 지방구단의 주력자원 B가 이들의 공백을 메울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이미 검증된 선수 C를 보유한 모 구단은 A와 C의 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도 나온다. 이들 골키퍼를 붙잡지 못할 경우, 해당 구단들은 A와 B 등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공산이 크다.

복수의 축구인들은 "아시아권, 특히 일본에서 한국선수들에 대해 대체로 성실하고 팀워크와 적응력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세레소 오사카가 J2(2부리그)로 강등됐을 때도 잔류를 택한 국가대표 김진현(28)이 대표적이다. J리그에서 시작될 골키퍼 이동이 K리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행운의 구덕구장"…수원FC 조덕제-부산 최영준 감독 '닮은꼴 출사표'



수원FC 조덕제 감독과 부산 최영준 감독

5일 승강PO 2차전 앞둔 두 감독

조 감독 "선수시절 구덕서 우승 추억"
최 감독 "대우 시절 전성기 누린 구장"

부산 아이파크-수원FC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5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은 전신이던 대우 로얄즈 시절 구덕운동장을 홈으로 쓰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부산이 이번 PO를 평소 홈으로 쓰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아닌 구덕운동장에서 하기로 한 것도 '명가 부활'을 꿈꾸며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적장인 수원FC 조덕제(50) 감독에게 구덕운동장은 '가슴 뿌듯한 추억의 장소'다. 그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구덕운동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대우 원클럽맨'으로 8년간 213경기를 뛴 주전 미드필더였다. 수원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챌린지(2부리그)의 힘을 보여준 조 감독은 "구덕에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추억이 있다"며 '친정팀 홈구장'에서 열릴 2차전에서 '2015년 승격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챌린지 준PO부터 무서운 기세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수원FC와 달리 클래식(1부리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부산의 처지는 그야말로 '백척간두'다. 부산 최영준(50) 감독은 10월 사실상 11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승강 PO를 앞둔 팀을 맡았다. '클래식 잔류'라는 특명을 받았지만 1차전에서 덜미를 잡히며 벼랑에 몰렸다. 부산 사령탑 취임 후 클래식 5경기에서 2무3패를 거두는 등 승강 PO 1차전까지 6경기를 치르며 아직 사령탑 데뷔승도 신고하지 못했다.

최 감독 부임 이후 팀의 공수 짜임새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승강 PO 결과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난 2년간 승강 PO에선 클래식 팀이 아닌 챌린지 팀(2013년 상주상무·2014년 광주FC)이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최 감독은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법"이라며 반전을 다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감독은 '84학번' 동기생이다. '구덕대첩'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린 두 감독이 5일 경기 후에는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슈틸리케 감독이 수원FC에 꽂힌 이유

공격위주 플레이 관심…1차전 관전
"수비수 보강하면 더 좋은팀" 훈수도



"1골을 빼앗기면 2골을 넣어 이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축구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61·독일·사진) 감독이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수원FC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수원FC-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1차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수원FC는 후반 초반 10대11의 수적 열세를 딛고 후반 40분 결승골을 뽑아 1-0으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수원FC 특유의 공격력이 다시 한 번 빛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슈틸리케 감독이 승강 PO 이전에도 수원FC의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다. 당시에도 공격 위주로 플레이하는 수원FC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어 "슈틸리케 감독은 수원FC가 수비수를 보강하는 등 수비를 좀 더 가다듬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드러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올해 20차례 A매치에서 44골을 터트렸다. 경기당 2.2득점이다. 11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했고, 9월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라오스와의 경기에선 무려 8골을 몰아쳤다. 무득점 경기는 동아시안컵 북한전이 유일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좋았다. 포메이션도 4-2-3-1에서 4-1-4-1로 바꿔 공격의 비중을 높인 한 해였다.

대표팀 사령탑이지만 한국축구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이 자신과 비슷하게 공격적 플레이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수원FC의 의미 있는 도전을 주시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가족이냐? EPL 도전이냐?…뮌헨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민

▌할로 분데스리가

'떠나느냐, 남느냐!'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사령탑 펩 과르디올라(44·사진) 감독의 행보는 유럽 축구계의 핫이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유력 행선지로 거론되지만 잔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독일 언론들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의 재계약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과르디올라의 행선지 결정에는 부인 크리스티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년을 함께하며 3남매를 둔 과르디올라 부부는 가족의 만족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과르디올라는 최근 "나도, 아내도 뮌헨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했고, 이에 현지 언론은 "가족은 당연하고 FC바르셀로나(스페인) 시절부터 뮌헨까지 함께 해온 마누엘 에스티야르테(54) 코치, 도메네크 토렌트(42) 코치 역시 과르디올라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더욱이 과르디올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지도자다.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하면서 제1의 목표로 삼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아직 들어올리지 못했다. 분데스리가를 2차례 제패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다. 과르디올라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곳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4-0으로 격파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보한 상황이다.

당연히 칼 하인츠 루메니게(60) 회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는 물론이고, 선수단도 과르디올라의 잔류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주장 필립 람(32)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감독이다. 우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는 인간적인 면모도 지녔다. 그의 잔류는 모두를 위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사령탑의 잔류를 바랐다.

다만 '도전'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르셀로나부터 바이에른 뮌헨에 이르기까지 일궈놓은 숱한 업적으로 이미 지도자 경력의 정점에 선 과르디올라다. 최근 발롱도르 최우수 감독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려 현존하는 최고 명장 중 한명임을 입증했다. EPL은 아직 그가 경험하지 못한 무대다.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 체제가 이어진 분데스리가에 비해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과르디올라의 향후 거취는 2015~2016시즌 전반기가 끝나는 19일 하노버전 이후 휴식기 동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